

두 영건 '세월호 슬픔'에 위로를 건네다



노승열이 28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미국 진출 2년 만에 첫 우승을 확정지은 뒤 감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PGA 첫 승 노승열

나이 23·나이키 골프
출생 1991년 5월 29일
신장·체중 183cm·76kg

주요경력
2005~2007 골프국가대표
2005년 한국주니어선수권 우승
2005년 한국 아마추어선수권 우승
2008년 아시아 투어 미디어차이나 우승
2010년 아시아투어 겸 유럽투어 메이뱅크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2012년 미국프로골프(PGA) 진출
2013년 PGA 2부 투어 웨딩컴투어 우승
2014년 PGA 취리히 클래식 우승

한국 골프의 '영건' 노승열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같은 날 세계 최고의 프로골프 무대에서 동반 우승했다.

노승열(23·나이키골프)은 28일(한국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루이지애나 TPC (파72, 7399야드)에서 열린 취리히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친 노승열은 2위 그룹(앤드루 스보보다, 로버트 스트렙)을 2타차로 누르고 생애 첫 PGA 투어 우승 컵을 거머쥐었다. PGA 투어 진출 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골프채를 잡은 노승열은 중학교 3학년 때인 2006년 국가대표로 발탁돼 일찌감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07년 프로로 전향한 그는 2008년 아시안투

PGA 진출 3년...한국인 최연소

78번째 도전 끝 미국 무대 정상

세계랭킹 88위로 뛰어 올라

어 대회인 미디어 차이나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그해 아시안투어 신인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아시안투어와 유럽투어가 공동 개최한 메이뱅크 말레이시아오픈에서 18세 282일의 나이로 우승했다. 이 기록은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가 보유한 유럽투어 최연소 우승(18세213일)에 이어 두 번째 최연소 우승 기록에 해당한다.

2010년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으로 아시안투어 최연소 상금왕에 올랐던 노승열은 2012년 두 번째 도전 만에 PGA 투어 웨딩컴투어를 통과해 꿈의 PGA 투어 무대에 진출했다.

하지만 PGA 투어는 만만치 않았다. 합계 PGA 투어 티켓을 따낸 배상문(28·캘러웨이)이 지난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동안 노승열은 톱10에만 5번 드는 데 그쳤다.

올 시즌 새 클럽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치면서 부활의 샷을 날리는 데 성공했다.

노승열은 드라이브 평균 거리에서 293.9야드를 날려 PGA 투어 전체 선수 중 50위, 평균타수 70.865타를 기록해 66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우승으로 페덱스컵 시즌 포인트 랭킹에서는 16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노승열은 그동안 세계적인 스윙 코치 부치 하먼에게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2012년 3월부터 타이거 우즈의 스윙 코치인 슌 플리의 지도를 받

프로 전향 후 첫승 리디아 고

나이 17(한국이름 고보경)
출생 1997년 4월 24일(뉴질랜드 국적)
데뷔 2013년 LPGA 입회

주요경력
2011년 마크 맥코맥 메달
2012년 호주 아마추어 여자골프선수권 우승
호주 여자골프 뉴시우스 웨일스 우승
제112회 US 아마추어 선수권 우승
LPGA 캐나다 여자 오픈 우승
KLPGA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 우승
2014년 LPGA 스윙잉 스키츠 클래식 우승
(프로 전향 후 LPGA 첫 우승)

았으나 지난해 말 결별하고 새로운 코치를 찾고 있다.

노승열은 "세월호 침몰로 마음 아파하는 국내 팬들에게 우승으로 조금이나마 위안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었다"며 "다음주에도 승리해 2주 연속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같은 날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윙잉스키츠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이 크 머세드 골프장(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스윙잉스키츠 클래식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 성적으로 정상에 올랐다. 프로 전향 후 미국 투어 첫 우승이다.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2억8000만원)다.

LPGA 투어 개인 통산 3승

美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미셸 위 이어 2주 연속 교포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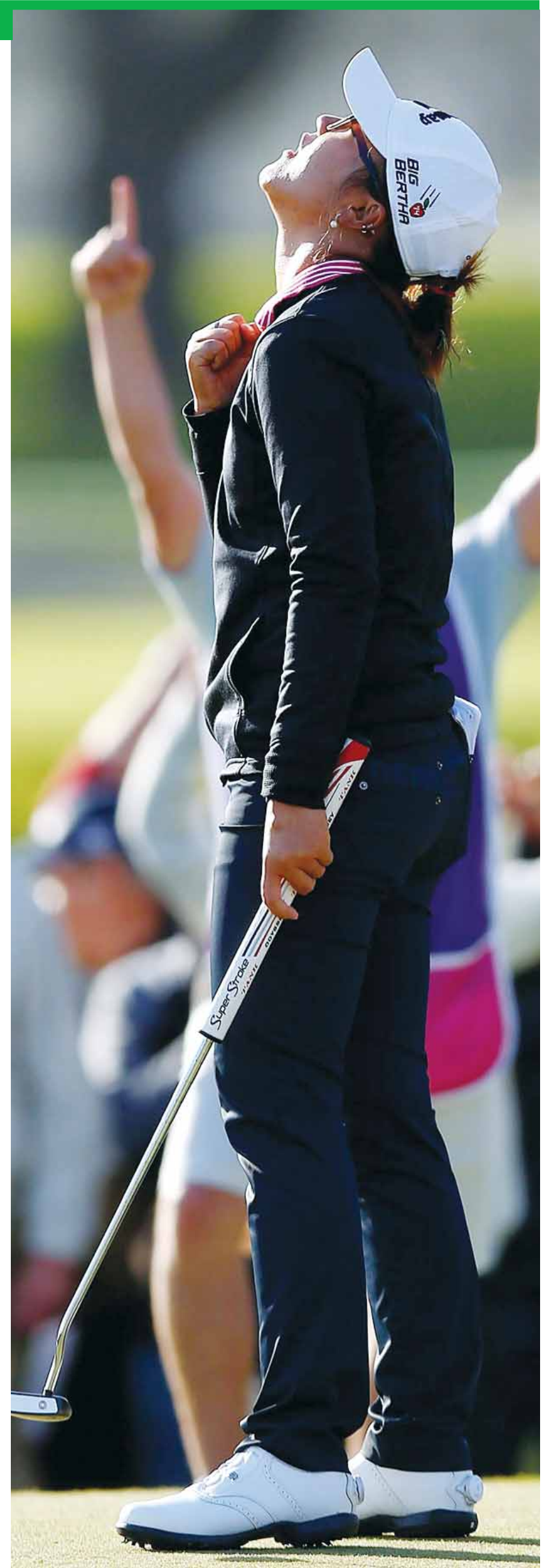
아마추어 시절인 2012년과 지난해 L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우승한 리디아 고는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3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프로 전향을 선언한 이후로는 첫 LPGA 투어 대회 우승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스윙잉스키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프로 전향 후 첫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리디아 고는 2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한국계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또 이 날은 마침 리디아 고의 생일이었던 터라 이번 대회 우승까지 리디아 고에게는 최고의 한 주가 됐다.

올해 LPGA 투어에서 한국 국적의 선수가 우승한 적은 아직 없지만 지난해 롯데 챔피언십에서 재미동포 미셸 위(25·나이키골프)가 정상에 올랐고 이번 주에는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가 우승컵을 품에 안아 '코리아 시스터스'의 위력이 2주 연속 LPGA 투어 필드를 감타했다.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6언더파 282타로 평산산(중국), 리네 베넬(덴마크)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제니 신(22·한화)이 10언더파 278타로 단독 3위, 김효주(19·롯데)는 4언더파 284타를 쳐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28일 미국 LPGA 투어 스윙잉스키츠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 퍼팅에 성공한 뒤 하늘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